

# 세계로 뻗어가는 우리책, 우리문학

## 관·민에서 문학번역 지원 활발 ... 번역가 양성과 현지 홍보가 과제

독일의 문예계간지 《디호렌》(die horen)은 지난 연말 한국문학특집호를 냈다. 한국의 시와 소설·단막극·수필 등이 실렸고 한국문학의 현황에 대한 개괄적인 평론도 포함되었다. 장욱진 화백의 그림과 우리 화가들의 한국화와 문인들의 사진이 게재되어, 한국문화의 특성을 풍성하게 보여준 이 특집호는 그동안 우리 문학의 해외진출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온 관계기관과 번역자들이 거둔 결실이다.

외국에 우리 문화를 전하는 첩경은 독창적인 우리 문학을 소개하는 것. 한국문학 번역지원 사업은 우리 출판의 세계화를 위한 주춧돌이다. 이를 위해 정부와 민간의 지원 사업이 활발하다.

### 번역지원 기틀 세운 문예진흥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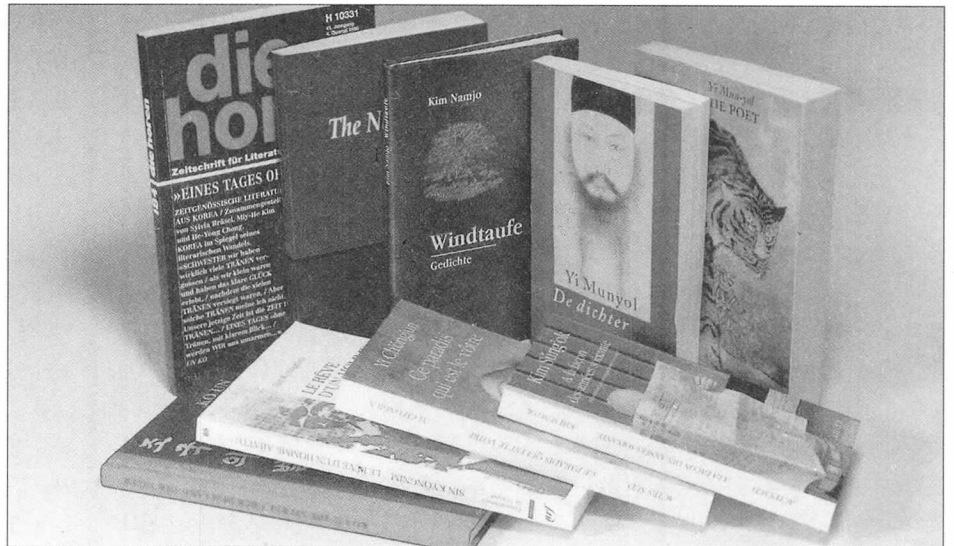
한국문화예술진흥원(원장 문덕수)을 위시한 정부의 문학번역출판 지원사업은 그야말로 정책적인 지원사업이다. 일본문학의 세계진출을 전례로 삼아, 노벨문학상 수상을 염두에 두고 사업이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예진흥원, (재)한국번역금고,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한국국제교류재단, 국제펜클럽 한국본부 등에서 이루어지는 번역사업 중 70% 이상을 문예진흥원이 차지하고 있다. 대체로 문체부와 외무부의 예산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들 단체에 비하면 역사는 일천하지만 대산재단 등 민간에서 이루어지는 번역사업도 짧은 시기에 효율적인 성과를 올리고 있다.

우리 문학의 해외번역으로 첫손 꼽히는 것은 1892년 프랑스에서 홍중우·로니 공역으로 이루어진 《춘향전(Printemps parfümé)》이다. 그러나 본격적인 해외번역은 문예진흥원이 번역지원사업을 시작한 1980년에 시작된다. 첫 작품은 영국 하이네만출판사의 홍콩 현지법인에서 출간한 황순원 단편집 《별 The Stars》이며, 현재까지 14개국어로 117권의 작품집이 나와 있다.

문예진흥원의 한국문학 번역·출판 사업은 불어권 지원 실적이 영미권보다 훨씬 많은 편이다. 프랑스 진출은 최윤·파트릭 모뤼스 교수 부부의 노력에 힘입은 바 크다. 처음에는 문고판 출판사인 악트 슈드에서 22권을 출간했으며, 지속적으로 한국문학에

**한국문학 번역지원 사업은 우리 출판의 세계화를 위한 주춧돌이다. 문예진흥원이나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같은 지원사업 외에도 기업의 문화재단이나 대학부설연구소의 지원도 활발하다. 다만 적극적인 홍보와 번역가 양성이 과제로 남아 있다.**

해외로 번역 출간된 우리 문학 작품들.



대한 관심이 높아진 최근에는 프랑스 최고의 갈리마르 출판사가 우리 문학을 번역 출판하고 있다. 《홍길동전》과 《한국민담집》 《신경림 시선》 등이 갈리마르에서 출판된 책들이다.

문예진흥원이 지원한 번역작품 대다수는 생존작가의 작품에 한정되어 있어, 노벨문학상 수상 가능성이 있는 작가의 작품을 알리기 위한 '목적에 급급하다는 비판도 있다.

문예진흥원은 '한국문학 번역출판' 이외에 '한국문학번역상 시상' '한국문학 신진번역가 연구·연수지원' '외국 저명 문인 초청 지원' '국내 문인 해외방문연구활동 지원' 등을 통해 다각적으로 번역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중 '한국문학 신진번역가 연구·연수지원'은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 번역가에 한한다. 번역비 지원은 번역료 1천만원 정도와 출판비를 일부 보조한다.

문예진흥원 국제교류부 강쌍구(28)씨는 "출판의 세계화는 최종적으로는 시장경제에 맡겨야 한다. 문예진흥원의 사업은 그 기틀을 마련하고자 시작됐다. 장기적으로는 자본의 움직임에 따라 출판의 해외 진출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한편 96년 '문학의 해'를 맞아 '문학의 해 조직위원회'는 한국문학의 세계화사업으로 체계적인 번역·출판, 전문번역가 양성, 한국문학 해외소개 사업을 골자로 '번역원' 설립을 발표했으나 구체화되지 못했고, 지난해 5월21일 발족한 문체부 산하 (재)한국번역금고가 이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1백억

원 기금 조성을 목표로 지난해 10억원을 조성한 번역금고는 아직 성과물이 없는 상태다. 현재 문화체육부 예술교류국에서 관장하고 있으며, 이사진이 임명되었을 뿐 사무실과 조직도 따로 없다. 같은 부처에 속해 있는 문예진흥원과 번역금고가 결국은 통합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 국제교류기관의 활동 활발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사무총장 권태준)는 1950년부터 50여권의 한국문화관련 단행본(음악·민속·한국학 지침서)을 냈으며, <유네스코 대표문학선집>으로는 불문서적 4권, 영문서적 2권을 발행했다. 1948년부터 추진해온 <유네스코 대표문학선집>은 45개 동양언어와 20개의 유럽언어로 씌어진 8백여편을 영어·불어로 번역, 간행한 선집. "동서 문화 가치의 상호 이해와 존중, 그리고 문화교류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소수언어 문학작품을 영어와 프랑스어로 번역 출판하여 세계에 보급한다"는 것이 문화홍보부 정소영씨의 설명이다.

영문한국시선집인 피터 현의 《Voices of the Dawn》(1960년)과 이학수의 《Anthology of Korean Poetry》(1964년)를 필두로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다른 기관이 생존작가 작품번역에 치중하는 것과 달리 유네스코 한위는 우리 고전 번역에 힘쓰는 편이다.

올해 사업으로는 《토지》 불문판이 갈리마르 출판사에서 번역 출판될 예정이다. 삼성

문화재단이 지원하기로 했지만 아직 미정인 상태. 서정인의 《달궁》과 '한국여성문인작품선'도 계획중이다. 아울러 《Korea Journal》, 《Revue de Coree》등을 통해 한국문학을 많이 소개하고 있고, 현재 '한국문학작품 번역발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해외의 한국학 지원이 중점사업인 한국국제교류재단(이사장 김정원)도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기관지 《Koreana》(계간)를 통해 매호 평균 2편 정도의 단편소설 영문번역을 게재하고 있다. 이 기관지는 영어·불어·일어·중국어·스페인어의 5개국어판으로 제작, 배포되고 있다. 또 《Koreana》의 기사를 특정분야별로 묶어 보존가치가 있는 단행본으로 발간하는 '한국의 문화유산시리즈'가 현재 3권 나와 있다. 이밖에 국내 일간지 및 학술지의 주요 논문을 번역한 《Korea Focus》를 발간하고 있으며, 국내학자의 우수 논문을 해외 출판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하여 지난해 박명림 교수(고려대)의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 《한국전쟁의 전개과정》을 지원했다.

국제펜클럽 한국본부(회장 김시철)에서도 한국문학 소개에 힘쓰고 있지만 문예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는 계간지 《Korean Literature Today》를 통해 한국문학을 소개하는 정도다.

### 대산재단 등 민간단체의 번역활동

대학부설연구소와 기업의 문화재단을 통한 번역지원도 활발하다. 연세대의 번역문학

일원화공급  
도서목록  
1996

저희  
출판사들은  
한국출판협동조합을 통하여  
一元化供給하고  
있습니다.

일원화공급  
회원사 도서목록  
1995

출판물의 판매, 배송, 수급, 재고 및 서점의 일괄관리

## 일원화공급 회원사

계명문화사

과학과예술

광문각

교육산업

국학자료원

(새미)

기술

도서출판 나란

(대웅출판사)

(창작수필사)

높은 오름

대광문화사

(한국지사)

대동문화사

대륙연구소

대운

大典書籍

(증권서적)

대정진

대훈사

동인

문화과학사

민족문화

바로교육

박이정

(서평학술자료사)

배명사

보고사

보문당

복두출판사

사상사

(하나미디어, 백두)

사회문화연구소

사회평론

서울경영컨설팅

서울프레스

성균관출판부

세종출판사

신서원

신지서원

신한종합연구소

아침

아카데미아

양문각

어문학사

엘멘

(크리스찬하우스)

오늘의문학사

오름시스템

(참여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의)

우등불

유림문화사

음악예술사

이희문화사

일월서각

전통문화연구회

전파과학사

정문출판사

정훈출판사

좋은인연

침말

창조사

청목출판사

청암미디어

(양영각)

태성출판사

태학사

학연문화사

(춘추각)

한국대학신문사

(엘리트뱅크)

한국문화사

한국산업경영연구소

한국적산연구소

한나래

한송

향학사

현대미학사

현대실학사

현대침구원

현상과인식

홍문관

화산문화

경남대출판부

경성대출판부

부산대출판부

부산외대출판부

울산대출판부

전주대출판부

한국외대출판부

연구소(소장 이성일)는 지난해 가을 《문학과 번역》 창간호를 내고 우리문학을 세계언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창간호에는 매천 황현의 한시를 중국어·영어·독일어·불어·러시아어로 소개하는 특집을 마련했다. 매호마다 특정 문인을 선정하여 특집형태로 소개하고 단행본도 출간할 예정이다.

대기업의 번역지원은 주로 기업재단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문학과 한국학 지원에 주력하고 있는 대산재단(이사장 신창재)이 짧은 기간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설립 첫해인 93년에 6건으로 시작한 번역지원사업은 94년에 7건, 95년에 11건, 96년에 11건의 번역사업을 선정 및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11권의 단행본을 발간했다. 고전 번역은 '해의 한국학 연구지원' 사업에 포함시켜 추진한다.

대산재단은 영어·불어·독일어 등 세계 주요언어권만을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한국문학을 세계에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우선 주요언어권을 공략할 계획"이라고 문화사업팀장 박호환씨(32)씨는 밝힌다. 대산재단은 번역작품을 번역가의 임의선택에 맡기는 것에 머물지 않고 평론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우리문학 중 반드시 번역해야 할 좋은 작품들을 선정, 번역대상 작품리스트를 공고하기도 했다. 대산재단은 지난해 번역지원에 1억5천만원, 해외한국학 지원 1억원, 번역학술심포지엄에 6천만원을 지원했다.

프랑스에서 개최되었던 한국문인행사 '벨르 에트랑제(Les Belles Etrangères)'를 지원하기도 했던 삼성문화재단(이사장 홍라희)의 번역지원 사업도 이에 못지 않다. 그러나 재단의 전체 문화지원사업 중에 번역 지원은 적은 몫이며 연례지원보다는 일회성 지원과 행사별 지원이 많다. 지난해 '문학의 해' 기념사업으로 한국문화정책개발원에 정책과제로 의뢰했던 <일본문화의 세계화 과정 기초연구>보고서 발간에 약 3천만원을 지원하기도 했다.

한국기업메세나협회의 이관영씨(29)는 "문학의 해 추진위원회와 관련사업에 지원된 지원금은 '미술의 해'에 광주비엔날레에 지원된 수백억원에 비하면 너무나 적은 액

수다. 기업측에서 볼 때 출판에 대한 지원은 메리트가 적은 것도 문제지만 추진위의 적극적인 유도가 부족하지 않았는가 싶다"라고 한다.

### 번역출판의 난제 개선해야

우리 문학의 세계화와 해외진출의 문제점은 적지 않다. 우선 번역사업이 계획적이고 체계적이지 않다. 각 기관의 경쟁이나 중복출판으로 인한 부실화 문제도 있다. 절대수가 부족한 전문번역가 양성을 위한 대책이나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점, 전문번역가가 직업이자 생계수단으로 정착하기는 요원하다는 문제도 있다. 현재 번역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각 기관은 서로 중복되거나 위화감을 느끼지 않도록 지원금액의 가이드 라인을 1천만원 정도로 정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공역이기 때문에 1인당 5백만원이 채 안되는 형편이다.

또 번역된 책의 홍보작업의 부재도 거론되고 있다. 이제까지는 번역자의 추천에 따라 일단 출판된 책의 홍보 및 판매는 현지출판사에 일임되었기 때문에 적극적인 관심과 전략이 없었다.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 대산재단은 앞으로 현지에서 기획행사를 개최할 예정이고, 문예진흥원은 책의 현지 광고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오랜 기간 정부의 지원이 한국문학을 세계에 알린 공적은 적지 않다. 또한 민간기업이나 재단의 번역지원도 더욱 추진력 있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 출판의 해외진출을 위해서는 민간지원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관계자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무엇보다 출판사의 해외번역과 진출에 대한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모색이 필요한 때다.

— 마정미 기자

우리 조합의 상세한 신간도서 자료는 중앙일보 인터넷 신문에 게재되고 있으며, 또한 신간도서 자료가 필요한 분을 위하여 주2회 PC로 자료를 제공합니다.

## 한국출판협동조합

일원화공급 거래문의(출판사·서점) TEL. 716-5616~9(106, 119)  
도서주문 전용 FAX. 716-3819, 3820, 2995